

한글문화연대

문해력 논란,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와 말한다

Q

요즘 아이들의 문해력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어머니들도 많으신데요,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님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문해력은 결코 낮지 않습니다.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는 전 세계 15세 청소년의 언어·수학·과학에 대해 동일하게 평가하는데,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시험 결과, 한국이 2위에서 10위를 차지할 정도로 문해력 수준은 높았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학생들이 유튜브나 숏폼과 같은 영상을 시청하는 시간이 늘고, 책이나 글을 읽고 생각하는 기회는 줄어들다 보니, 어른들은 아이들의 문해력이 낮아질지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아이들이 낱말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낱말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아이들의 문해력이 저하되었다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기성세대의 눈으로만 잣대를 들이대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기성세대라면 익숙한 낱말을 모른다고 해서 “문해력이 낮다.”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 듣는 말이라면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요. ‘심심한 사과’라는 표현을 못 알아들었다고 문해력 저하 논란이 일었는데, 기성세대에게 심심한을 한자로 써보라고 하면 열 명 중 한 사람이 쓸 수 있을 정도로 그 한자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甚深(심심)은 지나치다, 과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해력이란 여러 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두 번째는 한 문단 정도의 의미를 이해하는가, 더 나아가 한 문장 한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낱말 단위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휘력 향상을 위해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쳐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반대합니다. 우리는 한자를 국어로 삼지 않거나 말이라는 것은 글자 자체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사물이나 개념에 대해 실제로 보고 듣고 읽고 쓰고 말하며 그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익혀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떤 낱말의 표면적인 뜻만 알고 있었을지라도 읽고, 쓰고, 말하다 보면 그 쓰임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 자연히 문해력은 깊고 폭넓어질 것입니다. 이처럼 문해력 향상을 위해서는 읽기, 말하기, 쓰기 등 능동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길을 걷다 보면 영어로 된 간판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 같습니다. 한글로 적어도 되는데 굳이 영어로 적는 이유는 문화적 가치 때문이라는 글을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학술, 산업, 문화 전반에서 세계 공용어인 영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재를 반영한 것이라 봅니다. 영어로 쓰는 것이 있어 보이는 효과를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해방 뒤 미국의 영향력이 강해졌어요. 영어를 쓰기 전에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대체로 쓰곤 했죠.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 우리 문화가 힘 있는 문화가 되어서 외국어가 변방 문화로 치부되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십 년 전과 지금의 한국 문화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듯, 문화의 흐름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한편, 순우리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도 어렵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앉아주세요.”라고 말해도 충분히 “착석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면 안타까워요. 우리는 우리말을 더 자주, 널리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한자어를 쓰는 것도 영어를 쓰는 것처럼 특별하고 똑똑해 보이거나 남들과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 지켜온 순우리말을 해치는 거 같아 안타깝습니다.

Q

저는 ‘윤슬’이라는 순우리말을 처음 봤을 때, 순우리말 중에 이렇게 예쁜 말이 있구나, 라고 감탄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윤슬은 ‘햇빛이나 달빛이 비치어 반짝이는 잔물결’이라는 뜻입니다. 예쁜 말이죠

Q

대표님께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올바른 한글 사용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시고, ‘스크린도어가 열립니다’라는 자하철 안내 방송을 ‘안전문이 열립니다’로 변경, 또 강연 외에도 쉬운 한글 사용에 앞장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셨는데요,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저는 그동안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은 이들이 써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우리말을 많이 찾아서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슬 말고도 더 많이 있거든요. 순우리말을 찾아내는 것도 좋고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직 없는 물건이나 현상이 있다면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말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니까요.